

FAO “세계 식량비상”

3년째 흉작...재고 작년보다 4%p 줄어

95.10.14

【로마=AFP 연합】세계의 기본식량 재고가 최근 몇해 동안 크게 줄어들었으며 빈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곡물생산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13일 밝혔다.

농업기구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내년의 곡물수확이 중요하다”며 “현재 비축량의 안전선이 크게 침식되고 있기 때문에 비축량을

다시 채우고 96/97년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전세계 생산량의 약 5%인 9천5백만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올해 곡물 총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가 적은 18억9천1백만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3년째 예상소비량을 밑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류별로는 소맥이 5억3천6백만톤으로 1.9%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아프리카인들의 주식인 조곡류는 8억7백만톤

으로 8% 줄어들고 쌀은 5억4천7백만톤으로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렇게 생산될 경우 96/97년의 재고가 “세계의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한도의 수준에 훨씬 미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의 연간 소비량에 대한 올해 곡물 총재고는 14~15%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의 18%보다 3~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